

스마트폰 제조사, 폴더블폰 히비… 삼성 ‘약진’·애플 ‘빠격’

삼성, 유럽 등 글로벌 판매 증가
애플, ‘아이폰 듀오’ 내구도 논란
화웨이, 패널 출하량 감소 전망

삼성전자가 연말 폴더블폰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지 주목된다. 애플이 첫 폴더블폰 출시 직후 화면 파손 논란에 직면한 데 이어 화웨이의 성장세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의 연말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3일 출시한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에서 내부 디스플레이 파손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일부 제품의 화면 접합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밝은 선이 생기면서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 등은 호주의 한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지 약 6시간 만에 내부 화면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사례를 보도했다. 해당 구매자는 기기



서울 삼성 강남에 갤럭시 폴드8 및 플립8이 전시되어 있다.

/뉴시스

를 20회 미만으로 접었다 폈으며 외부 충격도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매장에 전시된 제품에서도 유사한 손상 사례가 공개됐다.

IT 유튜브 채널 ‘제리릭에브리핑’이 공개한 내구성 시험 영상에서도 아이폰 듀오의 힌지와 화면에 손상이 발생했다.

먼지와 모래를 뿌린 뒤 기기를 반복적으로 접는 과정에서 힌지 작동에 문제가 생겼으며, 반대 방향으로 구부리자 내부 화면에 녹색 선이 나타나고 터치 기능이 멈췄다.

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은 해당 채널의 내구성 시험에서 반대 방향으

로 힘을 가한 뒤에도 내부 화면이 정상 작동했다. 삼성전자는 첫 폴더블폰 출시 이후 힌지와 디스플레이 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올해 폴드8에는 티타늄 소재를 적용한 ‘폴렉스 티타늄’ 기술을 탑재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를 추격해 온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전망치도 낮아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화웨이의 폴더블폰 출하량 점유율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는 38%로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웨이의 폴더블폰용 패널 출하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화웨이용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6% 줄어드는 반면 삼성전자용 패널은 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완제품 판매량이 아닌 패널 출하량 기준이다.

이처럼 경쟁사들의 부진이 예상되는 반면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에서 폴더블폰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삼성전자 영국 뉴스룸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8과 폴드8 울트라에 유럽 합산 판매량은 출시 이후 9주간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실제 유럽 내 온라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삼성 폴더블폰 관련 구글 검색량은 전월 대비 260% 이상 증가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유럽 판매 실적은 아이폰 듀오 출시 이전에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애플의 화면 파손 논란에 따른 반사이익은 향후 판매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즈 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폰에 대해 초기 공급 물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별로 판매와 제품 인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함평군 공고 제2026-1198호

나산강 공공야영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나산강 공공야영장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함 평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2. 31. ~ 2027.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나산강 공공야영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520-3번지 일원	5,790㎡	함평군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문 발송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10. 27. ~ 2026. 11. 11.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함평군청 관광정책실 관광개발팀 (☎ 061-320-2223)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방법

- 함평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가. 열람기간만료 → 감정평가법인선정(주민추천등)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주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조서, 권리관계 등 구체적인 지번 확인은 열람장소에서 열람가능

K-기업, 인니 전동화 시장 공략

현대차, 발리 주정부 전기버스 공급
롯데이노베이트, 인프라 사업 확대

국내 자동차·충전 인프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대중교통 전동화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전기버스와 충전 설비, 운영·관제 기술을 공급하고 현지 경험을 동남아 사업 확대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카운티 일렉트릭 전기버스 11대를 발리 주 정부에 공급했다. 차비는 같은 사업에서 100kW급 급속충전기 6기의 공급과 구축을 맡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ODA 지원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추진하는 약92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이다. 관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발리에 처음 공공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충전 시설을 함께 보급해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현대차가 공급한차량은 현지 특장업체와 협업해 제작한 20인승 중형 전기버스다. 128킬로와트시(kWh) 배터리를 탑재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1회 충전으로 2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공급 이후에도 주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자바에서는 롯데이노베이트의 전기차 충전 전문 자회사 이브이시스가 별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7월 서자바주 간선급행버스(BRT) 루이판 장 차고지에서 충전소 설치 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ODA로 추진되는 이사업에는 200kW급 급속충전기와 통합 관제 플랫폼이 적용된다. 충전기 공급에 에너지 관리와 설비 운영·관제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브이시스는 현지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비 공급과 함께 현지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혁 기자 sh95@



metro

전문가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워”

>> 1면 ‘금·엔화 값 추락…’서 계속

‘악’ 소리가 나는 건 금만이 아니다. 안전자산의 대표 격인 엔화 값도 추락하고 있다. 일본 기준금리는 연 1.25%로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엔달러 환율은 156.86에 머물고 있다. 엔화 값이 싸지자 투자자들이 엔화사재기’에 나서면서 15일 국내 개인 엔화예금 잔액은 2656억2000만 엔으로 불었다. 2024년 11월(2715억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뭉치돈이 몰렸던 채권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26일 오후 3시(한국시간) 기준 연 4.969%를 기록했다.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7일 연 5.364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5%에 달하고 있다.

개미들은 안전자산 ‘삼형제’에서 발을 빼야 할지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동반 약세를 보이던 미국 국채와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금융시장이 신용 혹은 경기침체 리스크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며 “고유가 장기화와 프랑스 재정 리스크에 이어 AI발 불안마저 가세했다”면서 이들 요인들이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순환에 민감한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엔화는 최근 몇 년보다 매력적인 헤지 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